

2000년!

시낭송

나의 얼굴은  
콜라병 박혀 죽은 금이 언니의 자궁 속에도  
기계 바늘에 고단한 손가락 찢리는 엄마 주름 속에도  
700원 남은 농협 통장 권 마을 임니의 손에도  
꽃이라 불리다 떨어져 나간 내 친구의 질 속에도 있네

해방군이 나를 단장해 주리라 믿었지  
해방군이 우리를 단장해 주리라 믿었지  
어느 새 점령군이 되어버려  
가는 곳마다 진창길  
그 언저리 나는 서 있네, 나의 얼굴은

그러나 진흙탕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는  
해방의 꽃  
통일의 꽃  
임수경이라는 싹을 틔우고  
황혜로라는 잎을 내오고  
황선이라는 열매를 맺었던만

통일 나무를 통채로 베 내리는  
저들은 누구인가

조국이 부를 때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 
일어섰지  
빛이여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은가  
여성들이 날려 올린 통일의 방패면  
오래지 않아 우리가 닿을 그 곳에 먼저 닿아  
차별도 억압도 없는  
진정한 통일 세상 열리라는 것

이름 없는 여성들이 띄운 통일의 연  
통일의 푸른 바람 일으켜 날려보내자  
우리의 얼굴 얼굴에 웃음꽃 피우게  
함박눈들 그렇그렇 활짝 활짝 피우게

자리배치 : ① ② ③ ④ ⑤ ⑥

나의 얼굴은 1  
콜라병 박혀 죽은 금이 언니의 자궁 속에도 2  
기계 바늘에 고단한 손가락 찢리는 엄마 주름 속에도 3  
700원 남은 농협 통장 권 마을 임니의 손에도 4  
꽃이라 불리다 떨어져 나간 내 친구의 질 속에도 있네 5

고  
↓  
해방군이 나를 단장해 주리라 믿었지 6  
해방군이 우리를 단장해 주리라 믿었지 1~6  
어느 새 점령군이 되어버려 1  
가는 곳마다 진창길 6  
그 언저리 나는 서 있네, 나의 얼굴은 3, 4

✓ 그러나 진흙탕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는 1~6  
해방의 꽃 1~6  
통일의 꽃 1~6  
임수경이라는 싹을 틔우고 1,2  
황혜로라는 잎을 내오고 3,4  
황선이라는 열매를 맺었던만 5,6

통일 나무를 통채로 베 내리는 1  
\* 저들은 누구인가 1~6 (무섭게)

조국이 부를 때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1  
일어섰지 2  
빛이여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은가 3  
여성들이 날려 올린 통일의 방패면 4  
오래지 않아 우리가 닿을 그 곳에 먼저 닿아 5  
차별도 억압도 없는 6  
진정한 통일 세상 열리라는 것 1~6

이름 없는 여성들이 띄운 통일의 연 1~3(한 발 나서며)  
통일의 푸른 바람 일으켜 날려보내자 4~6(한 발 나서며)  
우리의 얼굴 얼굴에 웃음꽃 피우게  
(우리의 : 1~6(모두 한 발 나서며), 얼굴 얼굴에 : 2~5(한 발 나서며), 웃음꽃 피우게 : 3,4(한 발 나서며)  
함박눈들 그렇그렇 활짝 활짝 피우게 1~6 모두 팔을 들어 올리며